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 실증 분석: 1996-2002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seokje@kihasa.re.kr Tel: 02-380-8275 Mobile: 016-266-7811

1. 서론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는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의 문제로 되어 가는 것을 관찰한 Diana Pearce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Pearce는 미국 16세 이상 성인빈민 중 3명 중 2명은 여성이며, 노인빈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였다는 점을 밝혔다. Peterson(1987)도 빈곤의 여성화란 빈곤인구의 구성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1960년대까지 빈곤가구 대부분은 남성가구주였으나, 1970년을 전후하여서는 빈곤가구에서 남성가구주 가구가 감소하고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가구주 가구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밝혔다(Pearce, 1976: 이해경 외, 2002 재인용).

Millar(1996)도 빈곤의 위험이 양성간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빈곤의 성영역(gender dimension of poverty)을 구성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별분업에 의한 자원통제력에서의 여성들의 상대적 소외가 노동시장 접근, 가족내 여성역할, 사회보장체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고착·진행되어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라는 성별분업체계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의 부재는 경제적 자원접근통로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적 지위, 모성 및 아내로서의 책임 및 보살핌노동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자체가 어려운 점, 그리고 진입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진입이나 가족생활로 인한 잦은 이탈과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Millar, 1996: 한혜경, 2001: 이해경 외, 2002 재인용). 또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노동시장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설계를 담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구조가 사회보장제도도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여성이 사회보장수혜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빈곤의 여성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회이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 본 논문은 미완성원고이므로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이 50%에도 미치지 않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2002년 말 현재 47.9%)이 특징적이고,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내용도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 및 영세 자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안주엽 외, 2001, 2002; 송호근, 2002), 셋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도 짧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참여도 경제활동의 기간과 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대부분이 고용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로부터도 배제되어 있어(박순일 외, 2001; 석재은, 2003),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사망, 가출 혹은 이혼, 질병 등으로 여성가구주가 되었을 경우 빈곤상태에 놓일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도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관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1997년 말 경제위기시 전반적으로 빈곤 및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또한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어떠한 역동성을 보이며 변화되어 왔는지, 또한 빈곤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은 무엇이며, 빈곤가구 결정요인에서 성(gender)은 어느 만큼이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전소득에 의한 빈곤 및 불평등완화효과는 가구주 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최신의 전국 조사자료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극히 소수일 뿐 아니라 분석시점이 오래되었거나(이혜경, 1998) 분석자료 표본의 한계로 해석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거나(한혜경, 2000; 박경숙, 2001; 이혜경 외, 2002), 분석모형의 설계에 남성가구주 가구라는 비교집단의 분석을 결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라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대표성을 가지는 통계청의 1996년 및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함께 빈곤동향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1996~2002년간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의 설계하에 한국 사회에서의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한국에서의 여성빈곤 문제를 조명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전체적 관점에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며, 두 번째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시도한 연구이며, 세 번째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빈곤실태 및 자활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경우이고, 네 번째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여성빈곤 완화의 효과성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먼저,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이혜경(1998)의 “빈곤의 여성화: 한국 여성 빈곤의 원인과 결과”와 유정원(2000)의 “한국여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혜경(1998)은 한국에서의 여성의 빈곤화를 가장 먼저 조명한 연구로서, 1982년부터 1995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도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실태와 추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동 연구는 여성가구주를 노인여성과 남편없이 의존적인 자녀를 기르고 있는 여성, 도시 저소득층 여성, 도시지역 여성임금소득자 가구, 농촌빈곤여성 등으로 범주화한 여성의 빈곤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여성빈곤의 성

격과 정도를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인구의 2/3이 여성이며, 빈곤한 노령인구 중에 4/5가 여성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명확히 존재함을 알린 최초의 연구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이혜경(1998)은 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지 않아 가구원수를 반영한 빈곤선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한계상 도시지역 2인 이상 근로자가구에 한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유정원(2000)은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대우패널)를 이용하여 1995. 8~1998. 7년간 3차에 걸쳐 이루어진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고, 성과 빈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동연구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표본수가 작고, 분석결과도 전체빈곤가구 중에 여성빈곤가구의 비중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 여성가구주 가구 중에 빈곤율이 얼마나 되며, 이것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얼마나 유의미하게 높은지가 파악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빈곤의 여성화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김영란(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과 김영란(1999), "여성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이 있다. 김영란은 두 연구 모두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으로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임금차별, 여성직업의 계도화, 여성실업의 증가), 사회복지정책에서 여성의 주변화를 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국가를 생계유지자모델에서 개인모델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Goldberg & Kremen(1990)은 여성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적급여를 비롯하여 편모가족가족의 비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 노동시장내 성평등 수준 등의 요인을 꼽았다(Orloff, 1999; 이혜경 외, 2002 재인용).

세 번째, 저소득 모자가정에 초점을 두고 빈곤실태를 파악한 연구로는 박영란·강철희(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박경숙(2001),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실태와 자활대책 개선방안"이 있다.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제도의 여성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박영란·황정임(2002),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혜경·유태균·이선우·홍승아·최정균(2002),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장애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가 있다. 동 연구를 통하여 여성의 빈곤완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성빈곤과 관련한 연구들 가운데,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맥락과 목적을 가진 연구는 첫 번째 부류인 이혜경(1998)과 유정원(2000) 연구와 같이 한국에서의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빈곤 여성가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분석자료의 한계와 분석모델의 한계상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를 보였던 점을 보완하여, 한국 사회의 빈곤의 여성화 실태의 현주소를 정확히 규명하는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빈곤동향의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에서 매 분기마다 조사하여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 원자료(1996~2002, 2/4)와 함께 매5년마다 조사하여 발표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1996, 2001)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자료를 본 연구에 모두 활용한 이유는 각각의 조사자료가 가지는 장점과 한계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여야만,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는 '전국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5,2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을 일계부 기장방식에 의해 매월 조사·취합하되, 매분기 및 연간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는 현재 활용가능한 전국규모의 가구소득·소비지출자료들 중 매분기, 매년을 기준으로 발표되어 가장 빈번한 주기로 발표되는 자료로서,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빈곤동향의 신속한 파악에 유용한 대표적인 조사통계자료이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농어촌가구가 제외되어 있으며, 지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구와 함께 자영업자, 실업자, 노인·아동 등 비경제활동자를 포함한 비근로자가구도 조사하고 있으나,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만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동 자료로 전반적인 빈곤 및 소득분배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도시지역 2인 이상 근로자가구'라는 제한된 조사대상으로 전국 가구의 대표도는 35.2%에 불과하며, 특히 빈곤가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1인가구, 농어촌가구, 비근로자가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현실보다 빈곤상태가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분석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도시가계조사에서 누락된 1인 가구, 농어촌가구, 비근로자가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27,0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방식에 의해 5년을 주기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전국 규모의 가구소득·소비실태조사 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조사대상을 포함하는 자료로서, 우리 나라의 가구소득·소비실태의 현주소를 정확히 보여주는 대표성을 갖춘 조사 자료이다. 그러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도시가계조사자료와 달리 조사주기가 매 5년마다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위기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구소득·소비실태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전후의 빈곤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여성빈곤가구의 특성과 빈곤 결정요인 분석, 이전소득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 등의 분석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빈곤율은 전체가구 중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빈곤가구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을 파악을 위한 빈곤선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함께 OECD, EU 등 빈곤율의 국제비교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의 40%를 사용하였다.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별로 공시된 소득을 빈곤선으로 적용하였으며, 중위소득 및 평균소득의 경우에는 OECD에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 사용한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소득/(가구원수) ϵ , $\epsilon = 0.5$)를 이용하여 가구규모별 빈곤율을 추정함으로써 OECD 국가와 비교가능토록 하였다.

<표 1> 빈곤율 계측을 위한 빈곤선: 도시가계조사 및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

(단위: 원)

구분	최저생계비 ¹⁾	중위소득의 40% ²⁾
1996	225,774	400,000(399,526) ³⁾
1997	235,704	430,742
1998	253,473	389,982
1999	314,574	404,145
2000	324,011	433,804(416,000) ³⁾
2001	333,731	476,000
2002	345,412	505,597 ⁴⁾

주: 1) 정부가 발표하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임. 1996~1998년간의 최저생계비는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에 기준하여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며, 1999~2002년 최저생계비는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에 기준하여 정부가 매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1인가구 최저생계비임. 1994년 최저생계비 개념보다 1999년 최저생계비 개념이 더 포괄적이어서 실질적 최저생계비 수준이 1994년보다 1999년이 높음. 따라서 1994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던 1996~1998년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1999~2002년 최저생계비 수준이 다소 높으며, 특히 기준이 변동된 1998년과 1999년 사이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약간의 점프를 보임.

2) OECD 가구균등화지수(가구소득/(가구원수) ϵ , $\epsilon = 0.5$)를 이용한 빈곤선으로, 1인 가구 기준임.

3)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 중위소득 40% 소득임.

4) 2002년의 1, 2분기 평균을 이용한 것임.

4.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동향

1) 도시가계조사: 1996~2002

전체 빈곤율은 1996년 및 1997년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던 것이 경제위기를 거치며 1998년 및 1999년에 정점을 이루며 증가하였다가 2000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절대적 빈곤

개념에 가까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는 빈곤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상대적 빈곤개념에 가까운 국제비교 기준의 빈곤율은 감소속도가 느리고 빈곤율 수준도 아직 199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가지고 가구주 성별에 따라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로 구분하고,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가구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빈곤위험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2002년 2/4분기까지의 빈곤가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1997년 말 경제위기가 빈곤의 측면에서 가구주 성별간에 어떤 식으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설정한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9.3%에서 1997년 6.8%로 낮아지다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13.2%, 1999년 16.9%까지 높아졌고, 2000년 13.3%, 2001년 11.0%, 2002년 9.3%로 다시 낮아지고 있으나, 1997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2.5%에서 1997년 2.2%로 낮아지다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5.6%, 1999년 5.9%까지 높아졌고, 2000년 4.1%, 2001년 3.4%, 2002년 2.4%로 다시 낮아졌고, 거의 1997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최저 2.34배에서 최고 3.83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빈곤율이 최저 4.59% 포인트에서 최고 11.0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전에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에 비하여 3.75배 수준이었으며,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 증가율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율의 최고 2.6배에 이르고 가구주 성별간의 빈곤위험도 2.34배 수준까지 축소되는 등 경제위기 과정에서 빈곤위험이 성별간에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의 3.83배 수준으로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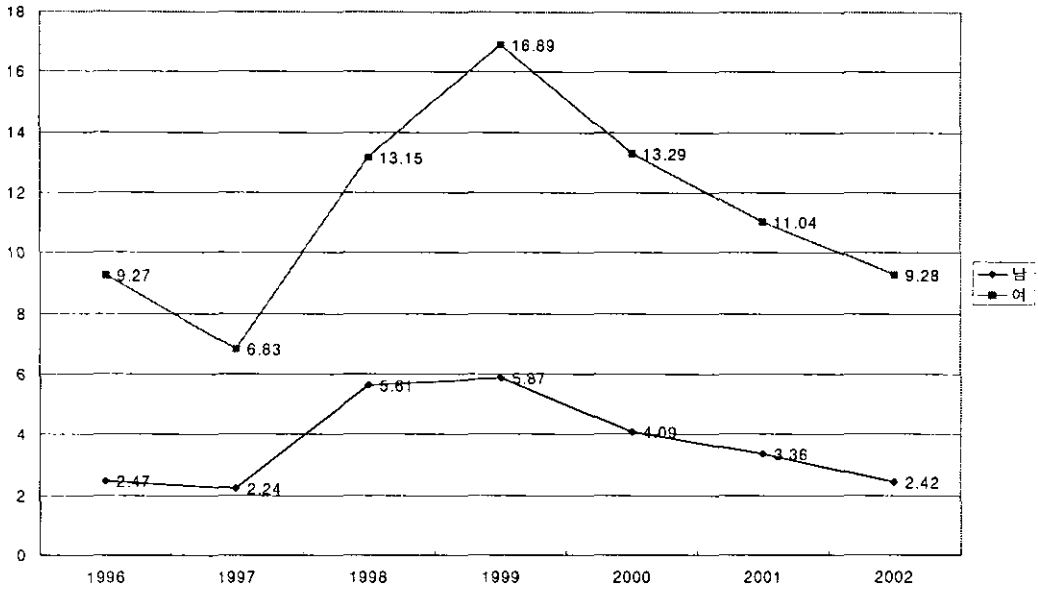
한편, 중위소득 40%를 빈곤선으로 설정한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13.1%에서 1997년 11.3%로 낮아지다가, 1997년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13.2%, 1999년 13.7%까지 높아졌고, 2000년 12.5%, 2001년 12.3%, 2002년 12.0%로 다시 낮아지고 있으나, 1997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및 1997년 3.4%에서 1997년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5.5%, 1999년 4.8%까지 높아졌다가, 2000년 3.8%, 2001년 3.8%, 2002년 3.0%로 다시 낮아져 1997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최저 2.42배에서 최고 4.0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빈곤율이 최저 7.75% 포인트에서 최고 9.69%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전에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에 비하여 3.85배 수준이었으나,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 증가율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율의 최고 3.6배에 이르고 가구주 성별간의 빈곤위험도 2.42배 수준까지 축소되는 등 경제위기 과정에서 빈곤위험이 성별간에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의 4.05배 수준으로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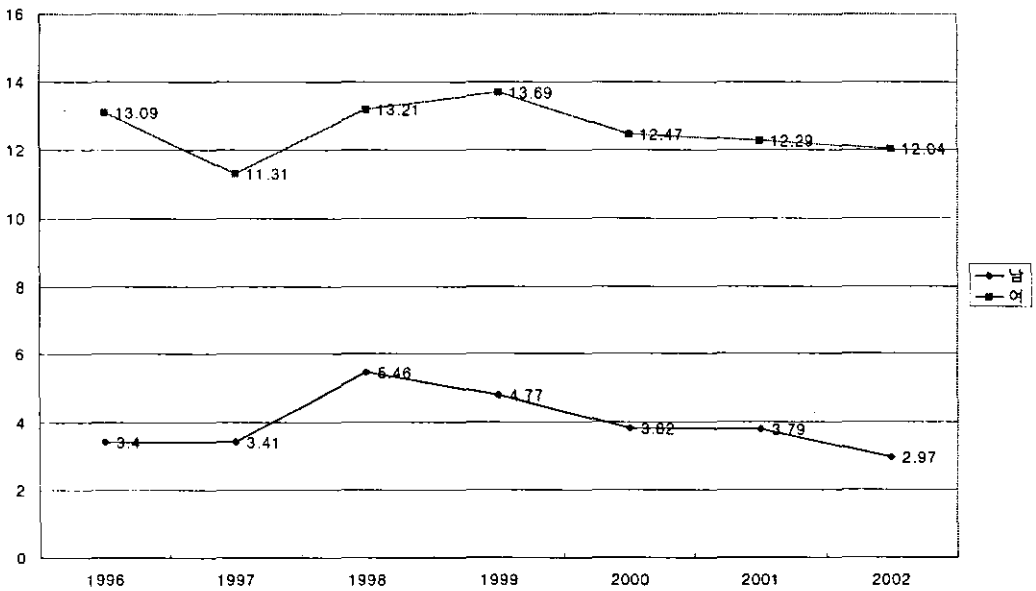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빈곤위험의 보편적 증가로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 간에 빈곤위험의 배수는 감소하였으나, 빈곤율의 단순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에서도 더욱 빈곤위험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또한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으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고착화 현상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표 2> 가구주 성별 빈곤동향 비교: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B/A (배)	B-A (%)
	빈곤율(%)			전년대비 빈곤율 증가율(%)					
	전체	남(A)	여(B)	전체	남	여			
1996	3.25	2.47	9.27	-	-	-	3.75	6.80	
1997	2.80	2.24	6.83	▲13.8	▲9.31	▲26.3	3.05	4.59	
1998	6.35	5.61	13.15	126.8	237.0	92.5	2.34	7.54	
1999	7.26	5.87	16.89	14.3	4.63	28.4	2.88	11.02	
2000	5.37	4.09	13.29	▲26.0	▲30.3	▲21.3	3.25	9.20	
2001	4.44	3.36	11.04	▲17.3	▲17.8	▲16.9	3.29	7.68	
2002.2/4	3.46	2.42	9.28	▲22.1	▲28.0	▲15.9	3.83	6.86	
	중위소득 40%							B/A (배)	B-A (%)
	빈곤율(%)			전년대비 빈곤율 증가율(%)					
	전체	남(A)	여(B)	전체	남	여			
1996	4.71	3.40	13.09	-	-	-	3.85	9.69	
1997	6.15	3.41	11.31	30.6	0.29	▲13.6	3.32	7.90	
1998	6.34	5.46	13.21	3.1	60.1	16.8	2.42	7.75	
1999	6.05	4.77	13.69	▲4.6	▲12.6	3.63	2.87	8.92	
2000	5.21	3.82	12.47	▲13.9	▲19.9	▲8.91	3.26	8.65	
2001	5.20	3.79	12.29	▲0.2	▲0.79	▲1.44	3.24	8.50	
2002.2/4	4.62	2.97	12.04	▲11.2	▲21.6	▲2.03	4.05	9.07	



〈그림 1〉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주 성별 빈곤동향: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그림 2〉 중위소득 40% 기준 가구주 성별 빈곤동향: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2)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 및 2000년

1996년 및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가구주 성별에 따라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로 구분하고,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가구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빈곤위험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설정한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8.37%였으나, 2000년에는 16.88%로 2.02배 증가하였으며,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1.82%였으나, 2000년에는 6.36%로 3.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1996년에는 4.6배였으나, 2000년에는 2.65배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가구주 성별간 빈곤율의 단순 격차는 1996년 6.55%에서 2000년 10.52%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40%를 빈곤선으로 설정한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18.98%였으나, 2000년에는 25.26%로 1.33배 증가하였으며,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3.56%였으나, 2000년에는 6.76%로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1996년에는 5.34배였으나, 2000년에는 3.74배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가구주 성별간 빈곤율의 단순 격차는 1996년 15.42%에서 2000년 18.5%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것은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빈곤위험의 보편적 증가로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 간에 빈곤위험의 배수는 감소하였으나, 빈곤율의 단순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에서도 더욱 빈곤위험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표 3> 가구주 성별 빈곤동향 비교: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

	최저생계비						B/A (배)	B-A (%)
	빈곤율(%)			1996년 대비 빈곤율 증감(배)				
	전체	남(A)	여(B)	전체	남	여		
1996	2.70	1.82	8.37	-	-	-	4.60	6.55
2000	7.94	6.36	16.88	2.94	3.49	2.02	2.65	10.52
	중위소득 40%						B/A (배)	B-A (%)
	빈곤율(%)			1996년 대비 빈곤율 증감(배)				
	전체	남(A)	여(B)	전체	남	여		
1996	6.72	3.56	18.98	-	-	-	5.33	15.42
2000	10.81	6.76	25.26	1.61	1.90	1.33	3.74	18.50

4.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

1) 연령

여성가구주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20세 미만 1.3%, 20-64세 83.1%, 65세 이상 15.5%였던 것에서 2000년에는 20세 미만 0.7%, 20-64세 76.5%, 65세 이상 22.7%로 타 연령계층에 비하여 6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여성가구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노령계층의 자녀동거비율이 낮아지는 가구구조의 변화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이 20세 미만이 18.2%, 20-64세가 4.5%, 65세 이상이 34.4%로 나타나,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20세 미만의 미성년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20세 미만이 18.4%, 20-64세가 11.6%, 65세 이상이 53.2%로 나타나, 노령계층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세 미만의 미성년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높으며, 20-64세 근로연령계층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로는 20-64세 근로연령계층의 빈곤율이 가장 큰폭인 158%나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빈곤율이 54.7% 증가하였고, 20세 미만 계층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근로연령계층내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근로연령계층의 빈곤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996년과 2000년의 빈곤율의 단순 변화폭이 가장 큰 연령계층은 65세 이상 노령계층으로 무려 18.8% 포인트나 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64세 근로연령계층이 7.1% 포인트, 20세 미만 미성년계층은 0.2% 포인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계층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 중에서의 비중도 증가한데 더하여 65세 이상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화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대비 2000년의 여성가구주 가구 중 65세 이상 연령계층이 46.5%(7.2% 포인트) 증가한데 비하여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65세 이상 연령계층은 54.7%(18.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여성가구주 노령계층이 빈곤위험에 특히 취약하며, 경제위기 영향으로 빈곤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위험에 노출되게 된 근로연령계층 여성가구주의 자활대책이 보장되어야 하며, 미성년연령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빈곤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

(단위: 가구, %)

구 분	전체 여성 가구주(A)	최저생계비		중위(0.4)		
		빈곤가구 (B)	B/A (%)	빈곤가구 (C)	C/A (%)	
1996	20세미만	132 (1.3)	24	18.2	47	35.6
	20-29	2235 (22.5)	42	1.9	120	5.4
	30-39	1544 (15.5)	69	4.5	122	7.9
	40-49	1901 (19.1)	96	5.0	170	8.9
	50-64	2591 (26.0)	162	6.3	424	16.4
	65세이상	1546 (15.5)	532	34.4	1005	65.0
	합계	9949 (100.0)	926	9.3	1888	19.0
2000	20세미만	38 (0.7)	7	18.4	12	31.6
	20-29	623 (12.0)	17	2.7	34	5.5
	30-39	697 (13.4)	78	11.2	87	12.5
	40-49	1270 (24.5)	135	10.6	140	11.0
	50-64	1383 (26.6)	229	16.6	300	21.7
	65세이상	1181 (22.7)	628	53.2	738	62.5
	합계	5193 (100.0)	1093	21.0	1312	25.3
증감율 (2000/ 1996) (%)	20세미만	▲46.2	1.1		▲11.2	
	20-29	▲46.7	42.1		1.9	
	30-39	▲13.5	148.9		58.2	
	40-49	28.3	112.0		23.6	
	50-64	2.3	163.5		32.3	
	65세이상	46.5	54.7		▲3.85	
	합계	0.0	125.8		33.2	
증감폭 (2000 - 1996) (%)	20세미만	▲0.6	0.2		▲4.0	
	20-29	▲10.5	0.8		0.1	
	30-39	▲2.1	6.7		4.6	
	40-49	5.4	5.6		2.1	
	50-64	0.6	10.3		5.3	
	65세이상	7.2	18.8		▲2.5	
	합계	0.0	11.7		6.3	

한편,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이 20세 미만이 35.6%, 20-64세가 10.1%, 65세 이상이 65.0%로 나타나,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20세 미만의 미성년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20세 미만이 31.6%, 20-64세가 14.1%, 65세 이상이 62.5%로 나타나, 노령계층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세 미만의 미성년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높으며, 20-64세 근로연령계

총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로는 20-64세 근로연령계층의 빈곤율이 가장 큰폭인 39.6%나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노령계층과 20세 미만 계층은 오히려 각각 3.9%,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근로연령계층내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근로연령계층의 빈곤율이 증가한 반면, 노령계층과 미성년 계층은 경제위기와 관계없이 상당한 빈곤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학력

여성가구주 가구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무학 15.5%, 초등학교 22.8%, 중학교 15.3%, 고등학교 31.3%, 대학교 8.9%, 대학원 1.0%였던 것에서 2000년에는 무학 16.8%, 초등학교 24.5%, 중학교 16.3%, 고등학교 27.1%, 전문대학 5.0%, 대학교 8.7%, 대학원 1.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학력이 비교적 저학력계층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1996년 대비 2000년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 중 중학교 이하 저학력계층이 53.6%에서 57.6%로 오히려 4.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구주로 되는 여성 중 저학력 여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은 무학 35.7%, 초등학교 8.3%, 중학교 5.0%, 고등학교 2.5%, 전문대학 4.0%, 대학교 1.7%로 나타나, 여성가구주가 무학일 경우 빈곤율이 현격히 높으며,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아 학력과 빈곤율이 반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무학 58.3%, 초등학교 25.3%, 중학교 12.8%, 고등학교 9.8%, 전문대학 2.8%, 대학교 2.5%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과 빈곤율간의 반비례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학력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로는 고등학교 학력의 빈곤율이 가장 큰 폭인 292%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204.8%, 중학교 156%, 무학 63.3%, 대학교 47.1%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 학력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빈곤율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빈곤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학력에 관계없이 빈곤화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1996년과 2000년의 빈곤율의 단순 변화폭이 가장 큰 학력계층은 무학으로 무려 22.6% 포인트나 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17.6% 포인트, 중학교 7.8% 포인트, 고등학교 7.3% 포인트, 대학교 0.8% 포인트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과 빈곤율의 증가폭도 정확히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학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 중에서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데 비하여 무학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996년 대비 2000년의 여성가구주 가구 중 무학 학력자가 8.4%(1.3% 포인트) 증가한데 비하여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무학 학력자는 63.3%(22.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위기 과정에서도 빈곤위험에 더 많이 노

출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저학력 여성가구주의 일자리 마련 등 소득보장대책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은 무학 62.5%, 초등학교 21.8%, 중학교 10.4%, 고등학교 5.8%, 전문대학 9.7%, 대학교 4.8%로 나타나, 무학의 빈곤율이 현격히 높으며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아 학력과 빈곤율은 반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무학 68.2%, 초등학교 31%, 중학교 15%, 고등학교 11.4%, 전문대학 5.7%, 대학교 4.5%, 대학원 1.1%로 나타나, 역시 학력과 빈곤율간의 반비례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학력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로는 고등학교 학력자의 빈곤율이 가장 큰폭인 96.6%나 증가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44.2%, 초등학교 42.2%, 무학 9.1% 각각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 및 대학교 학력자는 각각 41.2%와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가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고, 이들 저학력자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위험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빈곤 여성가구주의 학력별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

(단위: 가구, %)

구 분	전체 여성 가구주 (A)	최저생계비		중위(0.4)		
		빈곤가구 (B)	B/A (%)	빈곤가구 (C)	C/A (%)	
1996	무학	1540 (15.5)	550	35.7	962	62.5
	초등학교	2265 (22.8)	187	8.3	493	21.8
	중학교	1525 (15.3)	77	5.0	159	10.4
	고등학교	3115 (31.3)	77	2.5	181	5.8
	전문대학	519 (5.2)	21	4.0	51	9.7
	대학교	881 (8.9)	15	1.7	42	4.8
	대학원	104 (1.0)	0	0.0	0	0.0
	합계	9949 (100.0)	926	9.3	1888	19.0
2000	무학	872 (16.8)	508	58.3	594	68.2
	초등학교	1272 (24.5)	321	25.3	395	31.0
	중학교	845 (16.3)	108	12.8	127	15.0
	고등학교	1406 (27.1)	137	9.8	159	11.4
	전문대학	261 (5.0)	7	2.8	15	5.7
	대학교	451 (8.7)	11	2.5	20	4.5
	대학원	86 (1.7)	-	0.0	1	1.1
	합계	5193 (100.0)	1093	21.0	1312	25.3
증감율 (2000/ 1996) (%)	무학	8.4	63.3	9.1		
	초등학교	7.5	204.8	42.2		
	중학교	6.5	156.0	44.2		
	고등학교	413.4	292.0	96.6		
	전문대학	43.8	430.0	441.2		
	대학교	42.2	47.1	40.6		
대학원	70.0	0.0	-			
합계	0.0	125.8	33.2			
증감폭 (2000 - 1996) (%)	무학	1.3	22.6	5.7		
	초등학교	1.7	17.0	9.2		
	중학교	1.0	7.8	4.6		
	고등학교	44.2	7.3	5.6		
	전문대학	40.2	41.2	44.0		
	대학교	40.2	0.8	40.3		
대학원	0.7	0.0	1.1			
합계	0.0	11.7	6.3			

3) 결혼상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결혼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유배우 27.6%, 무배우 72.4%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유배우 31.3%, 무배우 68.7%로 나타나, 유배우의 경우에도 여성가구주가 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대비 2000년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 중 유배우인 경우가

27.6%에서 31.3%로 3.7%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실직, 가출 등으로 유배우임에도 여성가구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결혼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은 유배우 5.6%, 무배우 10.8%로 나타나, 무배우의 경우에 빈곤율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유배우 11.2%, 무배우 25.5%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무배우의 경우 빈곤율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결혼상태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 및 단순 변화폭 모두에서 무배우의 경우 유배우의 경우보다 빈곤율의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의 경우 빈곤율이 100% 증가한 반면, 무배우의 경우 136% 증가하였으며, 단순 변화폭의 면에서도 유배우의 경우 5.6%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무배우의 경우에는 14.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에서 무배우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무배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화 위험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대비 2000년의 여성가구주 가구 중 무배우인 경우는 5.1%(3.7% 포인트) 감소한데 비하여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 중 무배우인 경우는 136.1%(14.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도 무배우가 유배우의 경우보다 빈곤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무배우 여성가구주의 일자리 마련 등 소득보장대책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빈곤 여성가구주의 결혼상태별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

(단위: 가구, %)

구 분	전체 여성 가구주 (A)	최저생계비		중위(0.4)		
		빈곤가구 (B)	B/A (%)	빈곤가구 (C)	C/A (%)	
1996	유배우	2750 (27.6)	153	5.6	261	9.5
	무배우	7199 (72.4)	774	10.8	1626	22.6
	합계	9949 (100.0)	926	9.3	1888	19.0
2000	유배우	1623 (31.3)	182	11.2	190	11.7
	무배우	3570 (68.7)	910	25.5	1122	31.4
	합계	5193 (100.0)	1093	21.0	1312	25.3
증감률	유배우	13.4	100.0		23.2	
2000/ 1996(%)	무배우	45.1	136.1		38.9	
	합계	0.0	125.8		33.2	
증감폭	유배우	3.7	5.6		2.2	
2000 - 1996(%)	무배우	43.7	14.7		8.8	
	합계	0.0	11.7		6.3	

한편,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결혼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은 유배우 9.5%, 무배우 22.6%로 무배우의 빈곤율이 유배우 빈곤율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

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유배우 11.7%, 무배우 38.9%로 역시 무배우의 경우 빈곤율이 유배우의 경우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결혼상태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 및 단순 변화폭에서 모두 무배우의 경우 유배우보다 빈곤율의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의 경우 빈곤율이 23.2% 증가한 반면, 무배우의 경우 빈곤율이 3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변화폭의 면에서도 유배우의 경우 2.2% 포인트 증가한 반면, 무배우의 경우 8.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무배우의 경우 유배우의 경우보다 빈곤위험에 취약하여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 가구규모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1인 가구 40.7%, 2인 가구 25.3%, 3인 가구 19.0%, 4인 이상 가구 14.9%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1인 가구 41.2%, 2인 가구 24.4%, 3인 가구 20.8%, 4인 가구 이상 13.5%로 나타났다. 1996년 대비 2000년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 중 1인 가구가 40.7%에서 41.2%로 0.5%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성노인 독거가구의 증가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은 1인 가구 12.4%, 2인 가구 6.7%, 3인 가구 7.3%, 4인 이상 가구 8.0%로 나타나, 1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1인 가구 31.9%, 2인 가구 13.7%, 3인 가구 13.3%, 4인 가구 이상 13.0%인 것으로 나타나, 역시 1인 가구의 빈곤율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빈곤 여성가구주의 가구규모별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여성 가구주 (A)	최저생계비		중위(0.4)		
		빈곤가구 (B)	B/A (%)	빈곤가구 (C)	C/A (%)	
1996	1인	4052 (40.7)	502	12.4	1136	28.0
	2인	2522 (25.3)	168	6.7	397	15.7
	3인	1890 (19.0)	138	7.3	215	11.4
	4인이상	1484 (14.9)	118	8.0	140	9.5
	합계	9949 (100.0)	926	9.3	1888	19.0
2000	1인	2140 (41.2)	683	31.9	887	41.5
	2인	1267 (24.4)	174	13.7	224	17.7
	3인	1082 (20.8)	144	13.3	138	12.8
	4인이상	703 (13.5)	91	13.0	62	8.9
	합계	5193 (100.0)	1093	21.0	1312	25.3
증감율 2000/ 1996 (%)	1인	1.2	157.3		48.2	
	2인	43.6	104.5		12.7	
	3인	9.5	82.2		12.3	
	4인이상	49.4	62.5		46.3	
	합계	0.0	125.8		33.2	
증감폭 2000 - 1996 (%)	1인	0.5	19.5		13.5	
	2인	40.9	7.0		2.0	
	3인	1.8	6.0		1.4	
	4인이상	41.4	5.0		40.6	
	합계	0.0	11.7		6.3	

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가구규모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 및 단순 변화폭 모두에서 1인 가구의 빈곤율의 증가가 가장 현격하고, 그 다음으로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빈곤위험에 취약하고, 가구규모가 클수록 빈곤위험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 증가율을 보면, 1인 가구가 157.3%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2인 가구 104.5%, 3인 가구 82.2%, 4인 가구 이상은 6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변화폭의 면에서도 1인 가구가 19.5%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은 각각 7.0% 포인트, 6.0% 포인트, 5.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특히 1인 가구일수록 빈곤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는 전체 여성가구주의 가구규모별 구성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1996년과 2000년간에 1.2% 증가한데 비하여, 1인 가구의 빈곤율은 157%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빈곤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사후적 증가보다는 1인 가구의 빈곤화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1인 가구 여성가구주의 소득보장대책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은 1인 가구 28.0%, 2인 가구 15.7%, 3인 가구 11.4%, 4인 가구 이상 9.5%로,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빈곤율이 높고 가구규모가 클수록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규모와 빈곤율간에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1인 가구 41.5%, 2인 가구 17.7%, 3인 가구 12.8%, 4인 가구 이상 8.9%로 가구규모와 빈곤율간의 반비례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가구규모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 및 단순 변화폭에서 모두 1인 가구의 빈곤율의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48.2% 증가하고, 2인 가구 12.7%, 3인 가구 12.3% 증가하고, 4인 가구 이상은 오히려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변화폭의 면에서도 1인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13.5% 포인트 증가한 반면, 2인 가구 및 3인 가구는 각각 2.0% 포인트와 1.4% 포인트 증가하고, 4인 가구 이상은 0.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1인 가구가 빈곤위험에 훨씬 취약하고 빈곤계층으로 많이 전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5) 고용형태

도시가계조사에 기반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1996년 86.9%, 1997년 87.6%에서,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1998년 84.1%, 1999년 82.4%, 2000년 77.8%까지 떨어지다가 2001년 80.5%로 다소 회복된 상태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1996년 13.1%, 12.4%에서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15.9%, 1999년 17.6%, 2000년 22.2%까지 올라가다가 2001년 19.5%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1996년 대비 2000년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비정규직은 13.1%에서 22.2%로 9.1%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보편화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비정규직화 경향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도시가계조사에 기반하여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빈곤율은 정규직의 경우 1996년 7.1%, 1997년 5.1%로 떨어졌다가, 1997년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9.2%로 급등하고 1999년 10.8%로 정점을 이루고, 2000년 9.1%, 2001년 9.0%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는 회복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경우 빈곤율은 1996년 13.1%에서 1997년 11.4%로 떨어졌다가,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26.4%로 급등하고 1999년 37.6%로 계속 급상승하였다가 2000년 22.5%, 2001년 14.7%로 떨어지고 있으나 역시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

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고용형태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 및 단순 변화폭 모두에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의 경우보다 빈곤율의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빈곤율이 71.8% 증가한 반면, 정규직의 경우 28.2% 증가하였으며, 단순 변화폭의 면에서도 비정규직의 경우 9.4%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의 경우에는 2.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경우보다 빈곤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한데 더하여 비정규직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대비 2000년의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비정규직인 경우는 69.5%(9.1% 포인트) 증가한데 비하여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비정규직인 경우는 71.8%(9.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비정규직 여성가구주의 일자리 마련 등 소득보장대책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빈곤 여성가구주의 고용형태별 분포: 도시가계조사 기준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여성 가구주 (A)	최저생계비		중위(0.4)		
		빈곤가구 (B)	B/A (%)	빈곤가구 (C)	C/A (%)	
1996	정규직	4575 (86.9)	323	7.1	540	11.8
	비정규직	688 (13.1)	90	13.1	148	21.6
	합계	5263 (100.0)	413	7.8	689	13.1
1997	정규직	4693 (87.6)	240	5.1	474	10.1
	비정규직	666 (12.4)	76	11.4	132	19.8
	합계	5359 (100.0)	317	5.9	606	11.3
1998	정규직	3530 (84.1)	326	9.2	370	10.5
	비정규직	667 (15.9)	176	26.4	184	27.7
	합계	4197 (100.0)	502	12.0	555	13.2
1999	정규직	4179 (82.4)	449	10.8	392	9.4
	비정규직	892 (17.6)	335	37.6	302	33.9
	합계	5071 (100.0)	784	15.5	694	13.7
2000	정규직	4394 (77.8)	398	9.1	408	9.3
	비정규직	1252 (22.2)	282	22.5	296	23.6
	합계	5647 (100.0)	680	12.0	704	12.5
2001	정규직	4580 (80.5)	411	9.0	495	10.8
	비정규직	1109 (19.5)	163	14.7	204	18.4
	합계	5689 (100.0)	574	10.1	699	12.3
증감율 2000/ 1996(%)	정규직	▲10.5	28.2		▲21.2	
	비정규직	69.5	71.8		9.3	
	합계	0.0	53.8		▲4.6	
증감폭 2000 - 1996(%)	정규직	▲9.1	2.0		▲2.5	
	비정규직	9.1	9.4		2.0	
	합계	0.0	4.2		▲0.6	

한편,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은 정규직의 경우 1996년 11.8%, 1997년 10.1%로 떨어졌다가, 1997년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10.5%로 증가하다가 1999년 9.4%, 2000년 9.3%로 다시 떨어지고, 2001년 10.8%로 다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빈곤율은 1996년 21.6%에서 1997년 19.8%로 떨어졌다가, 경제 위기를 계기로 1998년 27.7%로 급등하고 1999년 33.9%로 계속 급상승하였다가 2000년 23.6%, 2001년 18.4%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고용형태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 및 단순 변화폭 모두에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의 경우보다 빈곤율의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빈곤율이 9.3% 증가한 반면, 정규직의 경우 21.2% 감소하였으며, 단순 변화폭의 면에서도 비정규직의 경우 2.0%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의 경우에는 2.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이 빈곤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5. 빈곤가구 결정요인 분석: Logistic Regression

1) 가구주 성별 빈곤가구의 특성

빈곤가구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빈곤가구 중 남성가구주 가구가 54.2%이고, 여성가구주 가구는 45.8%이다.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30-49세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65세 이상 비중이 무려 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가구주의 30.1%보다 27.4%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교육수준 분포를 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78.3%로 남성의 31.8%보다 무려 46.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결혼상태 분포를 보면, 유배우인 경우가 여성가구주 가구는 16.4%인 반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85.6%인 반면, 사별의 경우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72.3%인 반면, 남성은 4.4%이고, 이혼의 경우는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가 각각 7.9%,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취업상태는 상용직임금근로자 비중은 매우 낮아 여성가구주 및 남성가구주가 각각 1.8%, 3.9%이며,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는 여성의 경우 14.9%, 남성의 경우 19.4%이며, 자영자의 경우는 여성이 6.3%, 남성이 18.8%이며, 무직의 경우는 여성이 77.1%, 남성이 57.9%로 여성가구주가 무직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종사산업의 경우 여성은 농림수산업에 무려 79.2%가 포진되어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여성의 경우 1인 가구인 경우가 62.6%로 가장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4인 이상 가구인 경우가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구내 취업자수는 남녀 가구 공히 취업자가 없는 경우가 여성가구주 가구 74.5%, 남성가구주 가구 50.5%로 가장 높았다. 가구유형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중이 62.6%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미혼자녀)가구가 73.9%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가구 거주 지역은 6대 광역시 거주하는 경우가 여성은 36.7%, 남성은 47.1%로 나타났다.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는 광주전라제주지역에 가장 많은 24.5%가 거주하며, 빈곤 남성가구주 가구는 인천경기강원지역에 가장 많은 27.6%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거형태는 자가 비율이 여성 81.2%, 남성 66.2%로

가장 높았다.

<표 9> 빈곤가구의 변수별 기초통계 (n=2,584)

(단위: %)

구분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X2
가구주 성별	남성 54.2 여성 45.8	- 100.0	100.0 -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 3.9 30-39세 15.1 40-49세 16.7 50-59세 11.6 60-64세 10.1 65세 이상 42.6	2.6 7.4 11.2 11.7 9.7 57.4	4.9 21.6 21.4 11.5 10.5 30.1	244.9764***
가구주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3.1 중학교 14.1 고등학교 24.1 전문대학 3.3 대학교 이상 5.4	78.3 8.5 11.6 1.0 0.6	31.8 18.9 34.6 5.2 9.5	579.9986***
가구주 결혼상태	미혼 4.6 기혼 53.9 이혼 6.0 사별 35.5	3.5 16.4 7.9 72.3	5.5 85.6 4.4 4.4	1,420.8770***
가구주 취업상태	상용직임금근로자 2.9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 17.3 자영자 13.0 무직 66.7	1.8 14.9 6.3 77.1	3.9 19.4 18.8 57.9	130.2872***
가구주 종사산업	제조업 5.4 건설업 5.2 도소매판매업 7.4 음식숙박업 3.8 전기가스및운수통신업 2.2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1.1 기타서비스업 6.6 농림수산업 68.3	4.1 0.1 5.1 5.1 0.3 0.4 5.8 79.2	6.5 9.6 9.4 2.8 3.8 1.7 7.2 59.0	229.8403***
가구원수	1인 33.2 2인 25.8 3인 16.1 4인 이상 24.9	62.6 16.4 13.1 7.9	8.4 33.8 18.7 39.1	907.3141***
가구내 취업자수	없음 61.6 1인 31.0 2인 이상 7.4	74.7 23.7 1.7	50.5 37.2 12.3	195.8481***
가구유형	독신가구 33.2 부부(+미혼자녀)가구 44.9 편부모가구 7.5 기타가구 14.4	62.6 10.7 13.3 13.3	8.4 73.9 2.5 15.3	1239.8137***
가구 거주지역(1)	특별시, 광역시 42.3 비광역시 57.7	36.7 63.3	47.1 52.9	28.5153***
가구 거주지역(2)	서울 7.4 인천·경기·강원 23.7 부산·울산·경남 16.3 대구·경북 12.4 대전·충청 18.7 광주·전라·제주 21.6	5.7 18.9 17.3 15.0 18.7 24.5	8.9 27.6 15.4 10.3 18.6 19.2	54.6459***
가구주거형태	자가 73.1 전세 15.9 월세 8.9 기타 2.2	81.2 10.4 6.8 1.7	66.2 20.5 10.6 2.6	74.5380***

주: * p<0.05, ** p<0.01, *** p <0.001 원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00.

<표 10> 여성빈곤가구의 변수별 기초통계(n=1,184)

(단위: %)

구 분	미혼여성 가구주 가구	미혼자녀가진 여성가구주 가구	여성노인 가구주 가구	X2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	51.2	2.2	0.0	1589.7764***
	30-39세	29.3	16.4	0.0	
	40-49세	17.1	27.2	0.0	
	50-59세	0.0	29.7	0.0	
	60-64세	2.4	24.6	0.0	
	65세 이상	0.0	0.0	100.0	
가구주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4	56.7	97.6	556.8419***
	중학교	2.4	19.2	1.6	
	고등학교	73.2	22.0	0.7	
	전문대학	14.6	1.3	0.0	
	대학교 이상	7.3	0.9	0.0	
	미혼	100.0	0.0	0.0	
기혼	0.0	36.2	3.8		
이혼	0.0	19.2	0.6		
사별	0.0	44.6	95.6		
가구주 취업상태	상용직임금근로자	7.3	3.9	0.0	247.5800***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	19.5	31.5	3.2	
	자영자	2.4	9.9	4.0	
	무직	70.7	54.7	92.8	
	제조업	2.4	9.1	0.7	
건설업	0.0	0.0	0.2		
도소매판매업	17.1	7.3	2.8		
음식숙박업	0.0	12.3	0.4		
전기·가스·열·운수·통신업	2.4	0.4	0.0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2.4	0.9	0.0		
기타서비스업	4.9	11.6	1.9		
농림수산업	70.7	58.4	94.0		
가구원수	1인	63.4	32.8	82.9	325.7707***
	2인	19.5	23.5	11.3	
	3인	9.8	26.9	3.8	
	4인 이상	7.3	16.8	1.9	
	없음	68.3	51.3	91.0	
1인	31.7	45.0	8.5		
2인 이상	0.0	3.7	0.4		
가구유형	독신가구	63.4	32.8	82.9	379.4464***
	부부(+미혼자녀)가구	0.0	23.3	2.8	
	편부모가구	0.0	28.9	3.7	
	기타가구	36.6	15.3	10.6	
가구 거주지역(1)	특별시·광역시	53.7	45.5	29.6	35.1932***
	비광역시	46.3	54.5	70.4	
가구 거주지역(2)	서울	7.3	8.6	3.5	19.2010**
	인천·경기·강원	24.4	19.0	18.6	
	부산·울산·경남	14.6	17.9	17.1	
	대구·경북	4.9	14.7	15.8	
	대전·충청	19.5	16.8	19.9	
	광주·전라·제주	29.3	23.1	25.2	
	자가	63.4	72.8	87.9	
전세	17.1	15.9	6.2		
월세	17.1	9.1	4.6		
기타	2.4	2.1	1.3		

주: * p<0.05, ** p<0.01, *** p <0.001

원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00.

여성빈곤가구를 미혼여성가구주 가구, 미혼자녀를 가진 여성가구주 가구, 여성노인가구주 가구로 구분하여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10〉 참조).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미혼여성의 경우 30세 미만에 51.2%가 포진된 반면, 미혼자녀가진 여성가구주 가구는 40-64세에 81.5%가 포진되어 있으며, 여성노인은 65세 이상에 100% 포진되어 있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미혼여성은 고졸 이상이 95.1%인데 반하여, 미혼자녀가진 여성가구주 가구는 초등학교 이하가 56.7%, 여성노인가구는 초등학교 이하가 9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결혼상태 분포를 보면, 미혼자녀가진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유배우가 36.2%, 이혼 및 사별이 각각 19.2%, 44.2%로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95.6%가 사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취업상태는 3유형 모두 무직 비중이 가장 높으나, 미혼자녀 가진 여성가구주의 경우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가 31.5%, 자영자 9.9%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종사산업은 3가지 유형 공히 농림수산업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미혼자녀가진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음식숙박업이 12.3%, 기타서비스업 11.6%, 제조업 9.1%, 도소매판매업 7.3%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 분포를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미혼여성가구의 경우 63.4%, 여성노인가구의 경우 82.9%에 달하였다. 가구내 취업자수 분포를 보면, 취업자 1인이 있는 경우가 미혼여성의 경우 31.7%, 미혼자녀가진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45.0%, 여성노인가구의 경우 8.5%로 나타났다. 가구거주지역과 관련하여, 6대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미혼여성은 53.7%, 미혼자녀가진 여성가구주 가구는 45.5%, 여성노인가구는 29.6%로 나타났으며, 3유형 모두 광주전라제주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거형태는 3유형 모두 자가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빈곤가구의 결정요인: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빈곤가구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하여 가구의 빈곤여부를 빈곤(0), 비빈곤(1)의 이항변수로 만들어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주의 성별, 연령, 연령제곱, 교육수준, 결혼상태를 가구주 인적특성 독립변수로 하고, 가구주 취업상태, 가구주 종사산업을 가구주 취업특성 독립변수로 하며, 가구원수, 가구내 취업자수, 가구유형, 가구거주지역을 가구특성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하였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결혼상태, 취업상태, 종사산업, 가구유형, 거주지역은 더미변수로 만들었으며, 연령, 연령제곱,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내취업자수는 연속변수로 하였다. 따라서 빈곤가구 결정요인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Model 1: } \text{Logit} [P_i(1 - P_i)] = a + b_1dsex + b_2age + b_3age^2 + b_4sch + b_5dmar$$

$$\text{Model 2: } \text{Logit} [P_i(1 - P_i)] = a + b_1demp + b_2dind$$

$$\text{Model 3: } \text{Logit} [P_i(1 - P_i)] = a + b_1num + b_2wnum + b_3dtype + b_4darea$$

$$\text{Model 4:}$$

$$\text{Logit} [P_i(1 - P_i)] = a + b_1dsex + b_2age + b_3age^2 + b_4sch + b_5dmar + b_6demp + b_7dind + b_8num + b_9wnum + b_{10}dtype + b_{11}darea$$

(P_i = 빈곤확률, $1-C_i$ = 비빈곤 확률, $dsex$: 성별더미, age : 연령, age^2 : 연령제곱, $dsch$: 교육수준, $dmar$: 결혼상태 더미

$demp$: 취업상태 더미, $dind$: 종사산업 더미, num : 가구원수, $wnum$: 취업자수, $dtype$: 가구 유형 더미, $darea$: 지역 더미)

<표 11> 빈곤 결정요인 분석모형: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명		변수값	
종속변수	빈곤여부	비빈곤=0, 빈곤=1	
독립변수	가구주 인적 특성	가구주 성별	남성=0, 여성=1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세)
		가구주 연령제곱	(가구주 연령) ² (세)
		가구주 교육수준	교육연수(년)
	가구주 결혼상태	미혼 = dummy 1(미혼=1) 기혼 + 이별, 사별 등 무배우 = dummy 2(기혼+무배우=1) 기혼 + 유배우 = dummy 3(기준변수)	
		가구주 취업상태	무직 = dummy 1(무직=1) 상용직 임금근로자 = dummy 2(상용직 임금근로자=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dummy 3(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1) 자영자 = dummy 4(기준변수)
	가구주 취업특성	가구주 종사산업	제조업 = dummy 1(기준변수) 건설업 = dummy 2(건설업=1) 도소매 및 판매 = dummy 3(도소매 및 판매=1) 음식숙박업 = dummy 4(음식숙박업=1) 전기가스 및 운수통신 = dummy 5(전기가스 및 운수통신=1) 금융보험 및 부동산 = dummy 6(금융보험 및 부동산=1) 기타 서비스업 = dummy 7(기타서비스업=1) 농림수산업 = dummy 8(농림수산업=1)
		가구원수	가구원수(명)
		가구내 취업자수	가구내 취업자수(명)
		가구 특성	가구유형
가구 거주지역			특별시, 광역시 = 1, 비광역시 = 0

가구주 인적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1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 가구주 연령이 낮거나 혹은 매우 높은 경우에,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 > 유배우 > 미혼 순으로 빈곤상태에 놓여질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들 수준이 일정할 때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보다 빈곤에 떨어질 확률이 19% 증가하게 되고, 교육수준

이 1년 증가할 때 빈곤에 떨어질 확률은 1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취업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2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무직 >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 > 자영자 > 상용직임금근로자 순으로 빈곤에 떨어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의 경우 자영자보다 빈곤에 떨어질 확률이 207% 증가하며,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자 대비 빈곤확률이 67.3% 증가하는 반면, 상용직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자 대비 빈곤확률이 84.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종사산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에 비해 빈곤확률이 2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Model 3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자수가 작을수록, 독신가구 > 부부(+자녀)가구 > 편부모가구 순으로, 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상태에 놓여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들 수준이 일정할 때 가구원수 1명이 증가하는 경우 빈곤확률이 14.3% 증가하는 반면, 취업자수 1명이 증가하는 경우 빈곤확률은 8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신가구에 비하여 부부(+자녀)가구의 경우 빈곤확률이 24% 감소하며, 편부모가구의 경우 빈곤확률이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확률이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빈곤가구의 결정요인(빈곤=1)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가구주 인적 특성	상수	1.8578***						0.2919	
	성(기준: 남성)	0.1738**	1.190					-0.1120	0.894
	연령	-0.1541***	0.857					-0.0627***	0.939
	연령제곱	0.0018***	1.002					0.0006***	1.001
	교육수준	-0.1272***	0.881					-0.1396***	0.870
	미혼(기준: 유배우)	-0.4096***	0.664					0.0519	1.053
	무배우(기준: 유배우)	0.3223***	1.380					0.8934***	2.443
가구주 취업 특성	상수								
	무직(기준: 자영자)								
	상용직임금근로자(기준: 자영자)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기준: 자영자)			-2.8744***					
	건설업(기준: 제조업)			1.1226***	3.073			0.0919	1.096
	도소매및판매업(기준: 제조업)			-1.8436***	0.158			-1.7109***	0.181
	음식숙박업(기준: 제조업)			0.5144***	1.673			0.4380***	1.550
	전기가스운수통신업(기준: 제조업)			-0.0012	0.999			-0.1081	0.898
	금융보험부동산업(기준: 제조업)			0.1779	1.195			0.3992***	1.491
	기타서비스업(기준: 제조업)			0.1447	1.156			0.3257*	1.385
	농림수산업(기준: 제조업)			-0.1331	0.875			-0.2069	0.813
				-0.2097	0.811			-0.0144	0.986
			0.1671	1.182			0.3158**	1.371	
			1.1679***	3.215			0.4589*	1.582	
가구 특성	상수								
	가구원수								
	취업자수					-0.2577***			
	부부(+미혼자녀)가구(기준: 독신가구)					0.1340***	1.143	0.4447***	1.560
	편부모가구(기준: 독신가구)					-1.9977***	0.136	-1.5407***	0.214
	기타가구(기준: 독신가구)					-0.2739***	0.760	0.6124***	1.845
	6대광역시(기준: 비광역시)					-0.5086***	0.601	-0.4056***	0.667
					-0.0721	0.930	0.0904	1.095	
					-0.5143***	0.598	-0.2883***	0.750	
Likelihood Ratio Chi2(pr.)		3239.2502***		3659.1216***		3733.4834***		5577.7202***	
percent concordant		77.6		76.4		80.9		88.7	

주: * p<0.05, ** p<0.01, *** p<0.001
 원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00.

여성가구주 빈곤가구 결정요인과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결정요인을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가구주 인적특성면에서는 가구주 성별 빈곤가구간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주 취업특성면에서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도소매판매업,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면에서는 남성, 여성 가구모두 독신가구에 비해 부부(+자녀)가구의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편부모가구의 경우 독신가구에 비해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측면에서는 전체 빈곤가구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녀를 가진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빈곤가구와 남성가구주 빈곤가구의 결정요인을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가구주 인적특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배우에 비하여 무배우의 경우에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취업특성의 경우 전체 빈곤가구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특성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만 독신가구에 비해 부부(+자녀)가구가 더 빈곤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여성가구주 빈곤가구 및 남성가구주 빈곤가구의 결정요인 비교(빈곤=1)

변수	전체 빈곤가구				미성년자녀가진 빈곤가구				
	여성가구주 빈곤가구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여성가구주 빈곤가구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가구주 인적 특성	상수	1.0332		0.0357		0.5042		0.3375	
	연령	-0.0813***	0.922	-0.0564***	0.945	-0.0413	0.960	-0.0471	0.954
	연령제곱	0.0009***	1.001	0.0005***	1.000	0.0003	1.000	0.0003	1.000
	교육수준	-0.1250***	0.882	-0.1442***	0.866	-0.1450***	0.865	-0.1385***	0.871
	미혼(기준: 유배우)	0.0093	1.009	0.0134	1.014				
	무배우(기준: 유배우)	1.0958***	2.992	0.8400***	2.316	1.3386***	3.814	0.5094*	1.664
가구주 취업 특성	상수								
	무직(기준: 자영자)								
	상용직임금근로자(기준: 자영자)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기준: 자영자)	-0.6130	0.542	0.4193	1.521	-1.1305**	0.323	0.4314	1.539
	건설업(기준: 제조업)	-0.4724	0.624	-1.8415***	0.159	-0.3644	0.695	-1.8315***	0.160
	도소매및판매업(기준: 제조업)	0.4988**	1.647	0.3771***	1.458	0.5272**	1.694	0.4324***	1.541
	제조업)	-1.9686	0.140	0.1179	1.125	-13.6148	0.001	0.1214	1.129
	음식숙박업(기준: 제조업)	0.2282	1.256	0.4717**	1.603	0.0264	1.027	0.4529**	1.573
	전기가스운수통신업(기준: 제조업)	-0.2191	0.803	0.6493**	1.914	-0.2259	0.798	0.7243***	2.063
	제조업)	0.0517	1.053	-0.0427	0.958	-0.3656	0.694	-0.0625	0.939
	금융보험부동산업(기준: 제조업)	-0.9800*	0.375	0.3628	1.437	-0.8640	0.421	0.4249	1.529
	제조업)	0.1414	1.152	0.3785**	1.460	0.0905	1.095	0.4217**	1.525
	제조업)	0.1023	1.108	0.5811	1.788	0.6279	1.874	0.8925**	2.441
	기타서비스업(기준: 제조업)								
농림수산업(기준: 제조업)									
가구 특성	상수								
	가구원수								
	취업자수	0.5151***	1.674	0.4161***	1.516	0.4495***	1.568	0.4706***	1.601
	부부(+미혼자녀)가구(기준: 독신가구)	-2.1100***	0.121	-1.4364***	0.238	-2.2756***	0.103	-1.4135***	0.243
	: 독신가구)	1.0281***	2.796	0.6901***	1.994	1.6165***	5.036	-0.0365	0.964
	편부모가구(기준: 독신가구)	-0.4437**	0.642	0.1026	1.108	-0.2507	0.778	-0.1505	0.860
)	-0.2162	0.806	0.3604*	1.434	0.2935	1.341	-0.4009	0.670
기타가구(기준: 독신가구)	-0.2956***	0.744	-0.2720***	0.762	-0.1231	0.884	-0.2502***	0.779	
6대광역시(기준: 비광역시)									
Likelihood Ratio Chi2(pr.)	1878.0961***		3026.1899***		640.6497***		1859.6451***		
percent concordant	87.4		87.6		83.5		86.0		

주: * p<0.05, ** p<0.01, *** p<0.001

원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00.

미성년자녀 가진 여성가구주 빈곤가구의 결정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가구주 인적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1의 경우 연령이 낮거나 매우 높은 경우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배우에 비해 무배우의 경우에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1년이 높을 경우 빈곤확률이 1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배우의 경우 유배보다 빈곤확률이 38.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취업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2의 경우, 자영자에 비하여 상용직임금근로자

의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 임시일용직근로자는 유의미하게 빈곤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비해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3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자수가 적을수록, 독신가구에 비해 부부(+미혼자녀)의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편부모가구의 경우는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수를 투입한 Model 4에서도 몇 가지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4> 미성년자녀 가진 여성가구주 빈곤가구의 결정요인(빈곤=1)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가구주 인적특 성	상수	3.9245***						0.5042	
	연령	-0.1966***	0.822					-0.0413	0.960
	연령제곱	0.0019***	1.002					0.0003	1.000
	교육수준	-0.1411***	0.868					-0.1450***	0.865
	무배우(기준:유배우)	0.3254**	1.385					1.3386***	3.814
가구주 취업특 성	상수								
	무직(기준:자영자)			-2.2604***					
	상용직임금근로자(기준:자영자)			0.1338	1.143			-1.1305**	0.323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기준:자영자)			-1.0035***	0.367			-0.3644	0.695
	건설업(기준:제조업)			0.5191**	1.681			0.5272**	1.694
	도소매및판매업(기준:제조업)			-14.1121	0.001			-13.6148	0.001
	음식숙박업(기준:제조업)			-0.2444	0.783			0.0264	1.027
	전기가스운수통신업(기준:제조업)			-0.3925	0.675			-0.2259	0.798
	금융보험부동산업(기준:제조업)			-0.3049	0.737			-0.3656	0.694
	기타서비스업(기준:제조업)			-1.2514*	0.286			-0.8640	0.421
	농림수산업(기준:제조업)			-0.0306	0.970			0.0905	1.095
				1.0820**	2.950			0.6279	1.874
	가구특 성	상수					-0.6590***		
가구원수						0.1505*	1.162	0.4495***	1.568
취업자수						-1.5094***	0.221	-2.2756***	0.103
부부(+미혼자녀)가구(기준:독신가구)						0.5876**	1.800	1.6165***	5.036
편부모가구(기준:독신가구)						-0.6625***	0.516	-0.2507	0.778
기타가구(기준:독신가구)						0.1874	1.206	0.2935	1.341
6대광역시(기준:비광역시)						-0.3330**	0.717	-0.1231	0.884
Likelihood Ratio Chi2(pr.)		159.2587***		218.5001***		393.7246***		640.6497***	
percent concordant		67.0		61.6		75.2		83.5	

주: * p<0.05, ** p<0.01, *** p<0.001
원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00.

여성노인가구주 빈곤가구의 결정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가구주 인적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1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배우에 비하여 무배우의 경우에 유의미하게 빈곤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취업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2의 경우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여성노인의 경우 취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해석된다. 가구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3의 경우는 취업자수가 적을수록 빈곤확률이 높으며, 독신가구

에 비하여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빈곤확률이 낮으며, 비광역시에 거주할수록 빈곤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변수를 투입한 Model 4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5〉 여성노인가구주 빈곤가구의 결정요인(빈곤=1)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가구주 인적 특 성	상수	-6.8151***						-3.9285**	
	연령	0.1006***	1.106					0.0815***	1.085
	교육수준	-0.1313***	0.877					-0.1196***	0.887
	무배우(기준:유배우)	0.0987	1.104					-1.4345	0.238
가구주 취업 특 성	상수			-1.0344					
	무직(기준:자영자)			0.7826	2.187			0.1440	1.155
	상용직임금근로자(기준:자영자)			-14.5617	0.001			-12.7415	0.001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기준:자영자)			-0.6659	0.514			0.0871	1.091
	건설업(기준:제조업)			1.7003	5.475			1.3001	3.670
	도소매및판매업(기준:제조업)			0.3598	1.433			1.0085	2.741
	음식숙박업(기준:제조업)			0.4370	1.548			0.6476	1.911
	금융보험부동산업(기준:제조업)			-13.8967	0.001			-13.1638	0.001
	기타서비스업(기준:제조업)			1.0178	2.767			1.3733*	3.948
농림수산업(기준:제조업)			0.6887	1.991			0.1688	1.184	
가 구 특 성	상수					0.8031***			
	가구원수					0.0189	1.019	0.1301	1.139
	취업자수					-1.3276***	0.265	-1.4602***	0.232
	부부(+미혼자녀)가구(기준:독신가 구)					-0.7279*	0.483	-1.8088*	0.164
	편부모가구(기준:독신가구)					-0.5026	0.605	-0.3876	0.679
	기타가구(기준:독신가구)					0.0954	1.100	-0.1657	0.847
	6대광역시(기준:비광역시)					-0.7001***	0.497	-0.5347***	0.586
Likelihood Ratio Chi2(pr.)	168.8466***		83.8453***		152.4731***		271.7872***		
percent concordant	69.8		23.2		57.2		75.5		

주: * p<0.05, ** p<0.01, *** p <0.001

원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00.

6. 가구주 성별 소득원 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

1) 소득원 구성

가구주 성별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292만원인데 비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남성가구주 가구의 51.9% 수준에 불과한 15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가 전반적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구주 성별 소득원 구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90%이고, 자산소득이 5.6%, 사적이전소득이 2.5%, 공적이전소득이 1.6%인데 비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70%, 자산소득이 6%, 사적이전소득이 20.8%, 공적이전소득이 3.1%로 나타났다.

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근로소득 비중이 20% 포인트 낮은 반면, 사적 이전소득 비중은 18.3% 포인트 높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도 1.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중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비중이 7:3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동 비중이 남성가구주와 반대인 3:7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공공부조에 의한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가구주 성별 소득원 구성: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

(단위: 만원, %)

	전체		남성		여성	
경상소득	2622.39	100.0	2922.30	100.0	1552.46	100.0
근로소득	2297.76	87.6	2637.00	90.2	1087.52	70.1
자산소득	148.74	5.7	164.22	5.6	93.53	6.0
사적이전	128.11	4.9	73.45	2.5	323.10	20.8
공적이전	47.77	1.8	47.62	1.6	48.31	3.1
-공적연금	29.75	62.3	33.72	70.8	15.60	32.3
-공공부조	18.02	37.7	13.90	29.2	32.71	67.7

2) 이전소득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

전체 가구의 사적 및 공적이전소득의 이전전 빈곤율은 13.59%이며,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9.74%,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35.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진후 빈곤율과 비교하여 보면, 전체가구 빈곤율은 7.94%로 이전전보다 5.65% 포인트 감소하고,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6.36%로 이전전보다 3.38% 포인트 감소한데 비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6.88%로 이전전보다 무려 18.6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의 경우에도, 이전전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4446이고, 남성가구주 가구의 지니계수는 0.4032, 여성가구주 가구의 지니계수는 무려 0.5564로 나타났으나, 이진후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경우 0.3901로 0.0545 포인트 낮아졌고,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0.3730으로 0.0302 포인트 낮아진데 비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0.4128로 0.1436 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이전소득에 의한 불평등 완화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4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성별로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34.7%,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52.4%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소득에 의한 불평등 완화효과는 12.3%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7.5%,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25.8%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녀 공히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 및 불평등 완화효과가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 및 불평등 완화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율 감소

효과는 30.8%이고,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22.3%,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44.0%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불평등 완화효과도 9.3%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4.9%인데 반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2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율 감소 효과는 10.6%이고,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12.4%,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7.9%로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불평등 완화효과는 3.1%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2.8%,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5.2%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불평등 완화효과가 조금 더 높았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공적연금 이전효과에 의한 빈곤 및 불평등 완화효과가 각각 7.9%, 1.7%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1.9%, 0.7%에 비해 높았던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공공부조 이전효과에 의한 빈곤 및 불평등 완화효과가 각각 6.2%, 4.5%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4.7%, 1.1%보다 훨씬 높았다.

〈표 17〉 가구주 성별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
(단위: %, 지니계수)

구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빈곤율	지니 계수	빈곤율	지니 계수	빈곤율	지니 계수
빈곤 율 및 지니 계수	이전전: 경상소득-이전소득(A)	13.59	0.4446	9.74	0.4032	35.49	0.5564
	이전후: 경상소득(B)	7.94	0.3901	6.36	0.3730	16.88	0.4128
	사적 이전후: 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C)	9.41	0.4031	7.57	0.3836	19.88	0.4382
	공적 이전후: 경상소득-사적이전소득(D)	12.15	0.4308	8.53	0.3920	32.70	0.5276
	공적연금 이전후: 경상소득-사적이전소득-공공부조(E)	12.84	0.4384	8.97	0.3963	34.83	0.5523
	공공부조 이전후: 경상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연금(F)	12.87	0.4369	9.28	0.3988	33.30	0.5313
소득 이전 효과	이전소득 효과(A-B/A)	41.6	12.3	34.7	7.5	52.4	25.8
	사적이전 효과(A-C/A)	30.8	9.3	22.3	4.9	44.0	21.2
	공적이전 효과(A-D/A)	10.6	3.1	12.4	2.8	7.9	5.2
	공적연금 이전효과(A-E/A)	10.6	1.4	7.9	1.7	1.9	0.7
	공공부조 이전효과(A-F/A)	5.3	1.7	4.7	1.1	6.2	4.5

주: 1) 빈곤율을 위한 빈곤선은 2000년 보건복지부 발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이용함.
2) 소득이전효과=[(이전전 빈곤율(지니계수) - 이전후 빈곤율(지니계수))/이전전 빈곤율(지니계수)] × 100

참고문헌

-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8호, 2002.
- 김교성,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8호, 2002.
- 김영란,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제31집,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봄.
- 김영란, “여성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한국사회학』 제33집 가을호, 한국사회학회, 1999 가을.
- 박경숙,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실태와 자활대책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01.
- 박순일·황덕순·최현수, 『공적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빈곤층의 소득보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박영란·강철희,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3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999.
- 박영란·황정임,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 석재은·김태완, 『노인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석재은·김태완, “빈곤 및 소득분배 동향: 1996~2002 2/4분기”, 『보건복지포럼』 제74호, 2002, 12.
- 석재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미발간논문, 2003.
- 송호근,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제36집 제1호, 한국사회학회, 2002.
- 유정원, “한국여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혜경, “빈곤의 여성화: 한국 여성 빈곤의 원인과 결과”, 『빈곤퇴치: 한국의 경험과 교훈』, UNDP 한국대표부, 1998.
- 이혜경·유태균·이선우·홍승아·최정균,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장애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2002.
- 한혜경, “IMF 이후 빈곤 및 실업대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6집, 2000.
- 홍경준,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0호, 2002.
- Lewis, J.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2, 1992.
- Millar, J., "Women, Poverty and Social Security", in C. Hallett, *Women and Social Policy*, London: Prentice Hall, 1996.
- O'Connor, J.S., "Gender, Class, and Citizenship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 Regim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4, No. 2, 1993.
- Orloff, A. S.,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the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June 1993, 303-28, in Robert E. Goodin and Deborah Michell(eds.), *The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Volume I,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pp.61-86.
- Pearce, D.,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Vol. 11, 1976.

Peterson, J, "The Feminization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s Issues*, Vol. 21, 1987.

Rake, K, "Gender and New Labour's Social Policies",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30, No. 2, 2001.